

종근당 AIDS 치료제 활용 물질 개발
삼성전기 8mm 캠코더용 「미그헤드」 첫 개발
현대전자 386 SL급 노트북 PC 개발

▲종근당

종근당이 새로운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로 기대되는 원료 물질을 개발했다.

종근당은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인간면역부전 바이러스)에 활성이 뛰어난 CRB405 유도체라는 신물질을 합성,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물질은 에이즈치료제의 하나인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로서 美국립암연구소(NCI)에 약효검색을 의뢰한 결과 기존 약물에 비해 활성도는 거의 비슷하나 세포독성이 매우 적어 우수한 물질로 평가됐다고 종근당측은 설명했다.

종근당은 88년부터 에이즈 치료제 개발에 나서 미국 조지아大 朱重光박사와 공동연구를 해왔으며 최근 이 회사 연구팀이 독자적으로 1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5년간의 연구끝에 이 신물질을 개발해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그동안 전량 수입해 사용하던 8mm 캠코더용 미그헤드를 개발, 내년 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삼성전기가 30억원을 투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이 부품은 영상신호를 기록 재생하는 헤드에 특수한 샌더스트 금속박막을 입혀 화질을 높이는 캠코더의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기는 이달부터 이 제품을 시험생산한후 내년에는 연간 20만개, 95년에는 1백만개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이제품의 올국내시장 규모는 20만개, 세계시장은 9백만개이며 그 수요가 연간 30% 이상 늘어나고 있다.

▲현대전자

현대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PCMCIA 슬롯을 채용한 386SL급 노트북 PC를 개발했다.

현대는 인텔에서 최근 발

표한 노트북 PC전용 386SL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채택, 절전효과가 뛰어나고 정보처리 속도가 25MHz 고속인 노트북 PC를 개발, 본격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한개의 슬롯으로 모뎀 팩시밀리 LAN(구역내통신망) 기억장치인 스토리지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PCM-CIA 슬롯방식을 도입했다고 현대측은 설명했다. PCM-CIA 슬롯이란 개인용 컴퓨터메모리카드협회에서 정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확장슬롯을 말한다.

이제품은 한글을 단순 소프트웨어로 처리해 왔던 기존 제품들과 달리 한글 글자체를 하드웨어 시스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각종 한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현대측은 덧붙였다.<♣>

에이펙스 씨큐리티 무인 전자경비시스템 시판
삼성종합기술원 5.25인치 광자기 DD 개발
버림소프트 소프트웨어 제작용 SW 개발

▲ 에이펙스 시큐리티

에이펙스 씨큐리티가 무인 전자경비시스템(상품명 캐어 폰)을 개발 시판에 나섰다.

무선통신 전문회사인 스웨덴의 안테나사와 기술제휴로 제작된 이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은 신체에 위험을 느낄때 자동으로 전화가 걸려 비상상황이 전달되며 또 적외선감지기, 화재감지기 등을 내장, 도둑이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특히 비상시 고감도의 양방향화가 가능, 각종 범죄 방지는 물론 혼자 사는 노인의 비상연락 등에 까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에이펙스 씨큐리티는 이 제품을 연간 2만5천대 이상 생산, 수출과 내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이미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지역으로 부터 50만달러의 수주를 받아놓고 있으며 내년에는 3백만달러

의 수출을 목표로하고 있다.

▲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종합기술원이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인 5.25인치 광자기디스크드라이브를 개발했다.

삼성은 초경량 분리형헤드와 고성능 보이스 코일 모터 등 핵심부품을 포함한 5.25인치 광자기디스크 드라이브를 자체 기술로 개발, 국산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된 광자기디스크 드라이브는 검색시간이 평균 35ms(밀리세컨드)로 세계 최고속이라고 삼성측은 주장했다.

데이터 저장용량은 650메가바이트이고 분당 디스크 회전수는 2,400회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 제품은 밀폐형 헤드메커니즘과 자동개폐 카트리지가 도어방식을 채택, 기존제품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먼지에 의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했다고 삼성측은 설명했다.

삼성은 광자기디스크 드라이브를 내년부터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 버림소프트

소프트웨어(SW)제작용 SW가 개발됐다.

버림소프트는 컴퓨터 초보자도 프로그램을 만들수 있는 소프트웨어제작도구인 손오공 SW를 개발 공급에 나섰다

이 SW는 한국형케이스 툴로 컴퓨터전문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디스켓의 지시대로 따르면 D베이스 폭스베이스 크리퍼 명령어로 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버림소프트는 초급·중급·상급 등 3개과정으로 제작 도구를 설계, 하나의 디스켓에 수록한 손오공 SW가 간편한 키조작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해주며 통합패키지성 프로그램까지 제작해준다고 설명했다. <♣>